

제일모직, 영업이익 38% 급증

2/4분기 538억원 달해 ... 케미칼 매출 수출확대로 10% 늘어

제일모직은 2/4분기 매출액이 6897억원, 영업이익이 5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9%, 38.3% 증가했다고 7월27일 공시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386억원으로 8.1% 감소했는데 2005년 2/4분기에 강남 사옥 매각대금 210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된데 따른 것이라고 제일모직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케미칼은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액이 34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했고 패션도 빈폴 매출이 무려 33% 증가하는 등 고가 브랜드가 선전한데 따라 2755억원으로 7.7% 늘었다.

특히, 전자재료는 반도체회로보호재(EMC) 등 반도체 소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5.9% 치솟은 690억원을 기록했다.

제일모직은 하반기 케미칼 부문에서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원료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전자재료에서는 신소재 사업을 가시화시킬 계획이며 패션에서는 고가 브랜드 중심의 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8>